

2)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하다(22:7-8)

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
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

- 21:7-8/ '내 아버지여, '내 아들이': 가족 관계가 가진 신뢰를 강조.

'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':

* 대답의 회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솔직하고 정직한 응답.

* '준비'는 숫양과 장소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.

* 레위기의 제사는 제사 주체 자신이 짐승을 제공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책임을 돌림-그리스도의 희생.

* 장자를 구속함에 있어 아이를 주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성별된 가족 후세대의 연속성을 나타냄.

3) 주님에게 바치는 희생 제사(22:9-19)

중요내용

1. 두 번의 제사(이삭과 숫양)와 두 차례 하늘의 메시지.
2.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아브라함이 번제를 바친 것으로 인정하심.
3. 숫양을 바친 후에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의 확인 - 세례 때에 예수님의 아들되심과 사역의 확인.

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
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
11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
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

- 22:9-10/ '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': 아브라함의 계획된 순종을 반복.

'그 곳': 여호와와 산 - 모험론적으로 시내산,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킴.

'제단을 쌓고': 아브라함의 습관에 부합하여 믿음의 순례를 출발할 때 이 땅에 들어오던 일을 기억나게 함.

모세도 번제단을 세움(출 17:15; 24:4).

'이삭을 결박하여':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의도되었음을 인정. 번제 제도에 '결박'은 없음.

'칼을 잡고... 잡으려 하니': 느린 전개 - 아버지와 함께 길게만 느껴지는 순간의 괴로움을 경험.

'잡으려 하니':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, 망설임 없이 이삭을 죽이려 함.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완전한 수긍.

- 22:11-12/ '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': 스토리의 전환점. 하갈과 이스마엘 때와 같이 천사가 하늘에서 말함.

'손을 대지 마라': 하늘에서 전하는 명령의 열정. '손을 내밀어(10절)'의 역전.

'아무 일도 하지 말라': 금지 명령의 긴박성은 포괄성으로 확대됨.

'이제... 아노라': 이 시련이 시험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충성이 가진 깊이를 깨달았음을 시인.

'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(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)':

*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를 얻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신뢰를 묘사

'네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':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여주는 시험의 증거.

* 약 2:22: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됨.

'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':

* 아브라함의 순종이 갖는 미덕에 찬사를 보내심.

* '유일한 아들'을 풀어 주면서,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아브라함은 무수한 후손을 얻음.

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

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

- 22:13-14/ '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': '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?(7절)'의 답 -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.

'숫양': 방금 잡힌 숫양-제물이 될 숫양이 갑자기 나타나 편하게도 완벽한 순간에 걸린 것.

'아들을 대신하여': 대속의 죽음이라는 관념의 전형. 레위기 제도의 특성.

'아훼 이레': '그가 보았다(라아)'를 반영.

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

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

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

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

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

- 22:15-16/ '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': 흔치 않은 맹세 형태(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)와 이어질 서약을 강화.

- 창세기에서 유일한 명시적 의무를 지며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맹세의 표현.

'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': 미래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강복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충성.

- 22:17-18/ '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': 12:2의 첫 번째 서약에 '확실히'를 추가한 것.

'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':

* 여기에서 새롭게 등장했지만 리브가의 가족 축복(24:60)에 나올 예정.

* 리브가의 축복은 이 언어를 사용하여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어진 언약을 하나로 묶음.

* 아브라함이 동쪽 왕들의 연합체를 패배시킨 일과 평원 도시들의 멸망 연상.

'네 씨': * 약속의 후손인 '이삭'의 보존을 반영.

* 단수(다윗, 예수 그리스도)와 복수(이스라엘) 모두 해석 가능.

'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': * 시 72:17-이상적인 왕이 약속을 성취

* 렘 4:2-회개하는 이스라엘만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묘사.

*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으로써의 아브라함의 위상.

'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':

* 순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세우는 일에 성공하는 결정적인 요인.

- 22:19/ '함께 떠나': 그들 중 두 사람이 함께 갔다(19절)를 깊이 반영.

'브엘세바에 이르러':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이 끝이남.

14. 나홀 가문(22:20-24)

20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

21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

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

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

24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

- 22:20-24: '밀가가...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': 12아들의 이름.

* 데라 가문이 출발은 더디지만 무수한 후손을 낳음.

* 나홀 계보는 여족장 조상을 생산(리브가, 레아, 라헬)

15. 사라의 매장지(23:1-20)

중요내용

1. 사라의 죽음으로 이삭-리브가의 승계를 준비
2.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에 가족의 터전을 확보.
3. 조상의 무덤에 매장된다는 것은 가문에 대한 존중과 연속성을 암시(야곱과 요셉의 예).
4. 자기 후손이 결국에는 이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.
5. 아브라함에 대한 헷 족속의 존중과 아브라함의 영향력에 대한 암시.

1)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음(23:1-2)

- 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헷수라
- 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

- 23:1-2/ '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': 이삭이 태어난 지 37년,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, 가나안에 들어간 지 62년 만.
'헤브론 곧 기랴아르바': 사라의 매장지, 약속과 관련된 족장의 중요 행위가 많이 발생.
'슬퍼하며 애통하다가': 관례적 애도.
- 23:3-4/ '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': 애도가 끝난 후에 헷 족속에게서 매장지로 쓸 땅을 찾음.
'헷 족속': 후에 헷 족속 여인들과 예서가 종족 간 혼인을 함. 헷 제국과는 다른 집단.
'나그네', '거류자': 땅이 없는 상태-이방인 모티브. 매장지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시사.
'장사하게 하시오': 집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매장할 땅이 필요함-위협 요소 제거.
'소유지를 주어': 지금은 땅이 없지만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.

2) 매장지의 거래(23:3-18)

- 3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
-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
- 5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
-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
-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
- 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
- 9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

- 23:5-6/ '헷 족속이': 집단적 응답.
'내 주여 들으소서': 공손함과 아브라함에 대한 특별한 경의.
'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': 이방인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히 은총을 받는 자로 인정됨.
'좋은 것을 택하여...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':
- 23:7-9/ '몸을 굽히고':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주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경우.
'막벨라': 밭과 굴을 포함한 한 구획의 땅.
'밭머리', '충분한 대가': 침범 가능성에 제한을 두며 자신이 에브론과의 협상에서 신뢰를 가졌음을 나타냄.

10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
 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
 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
 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

- 23:10-11/ '에브론이.. 앉아 있더니':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에브론이 유력한 인물임을 암시.
 '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': 합의의 증인이 시민임을 강조(18절).
 '내 주여': 외지인으로써 아브라함의 이례적인 지위.
 '내 그 밭을... 드리고': 호의로 비취질 수도 있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음.
- 23:12-13/ '몸을 굽히고': 협상에 앞선 감사와 겸손.
 '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': 증인이 있는 가운데 거래 가격을 포함하여 공식적 업무 처리를 원함.

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
 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
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
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돌린 모든 나무가
 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

- 23:14-16/ '은 사백 세겔': 에브론이 정한 밭의 가격.
 '무슨 문제가 되리이까': 새롭게 맺게 된 둘 사이의 관계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익보다 더 나음을 암시.
 '헷 족속이 듣는 데서', '아브라함이... 주었더니': 에브론이 제시한 가격에 공식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음.
- 23:17-18/ '마므레 앞... 모든 나무가': 거래 관련 정보. 막벨라의 밭과 이에 딸린 굴과 나무가 포함됨.
 '헷 족속이 듣는 데서': 재산에 대한 권리 양도의 증인이 되어 거래가 합법적임을 보증.

3) 사라의 매장(23:19-20)

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(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)
 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

- 23:19-20/ '가나안 땅... 장사하였더라': 매장지의 특징을 강조. 땅에 대한 약속 성취의 시작.
 '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': 양도된 재산을 이전하는 기사로 마무리.